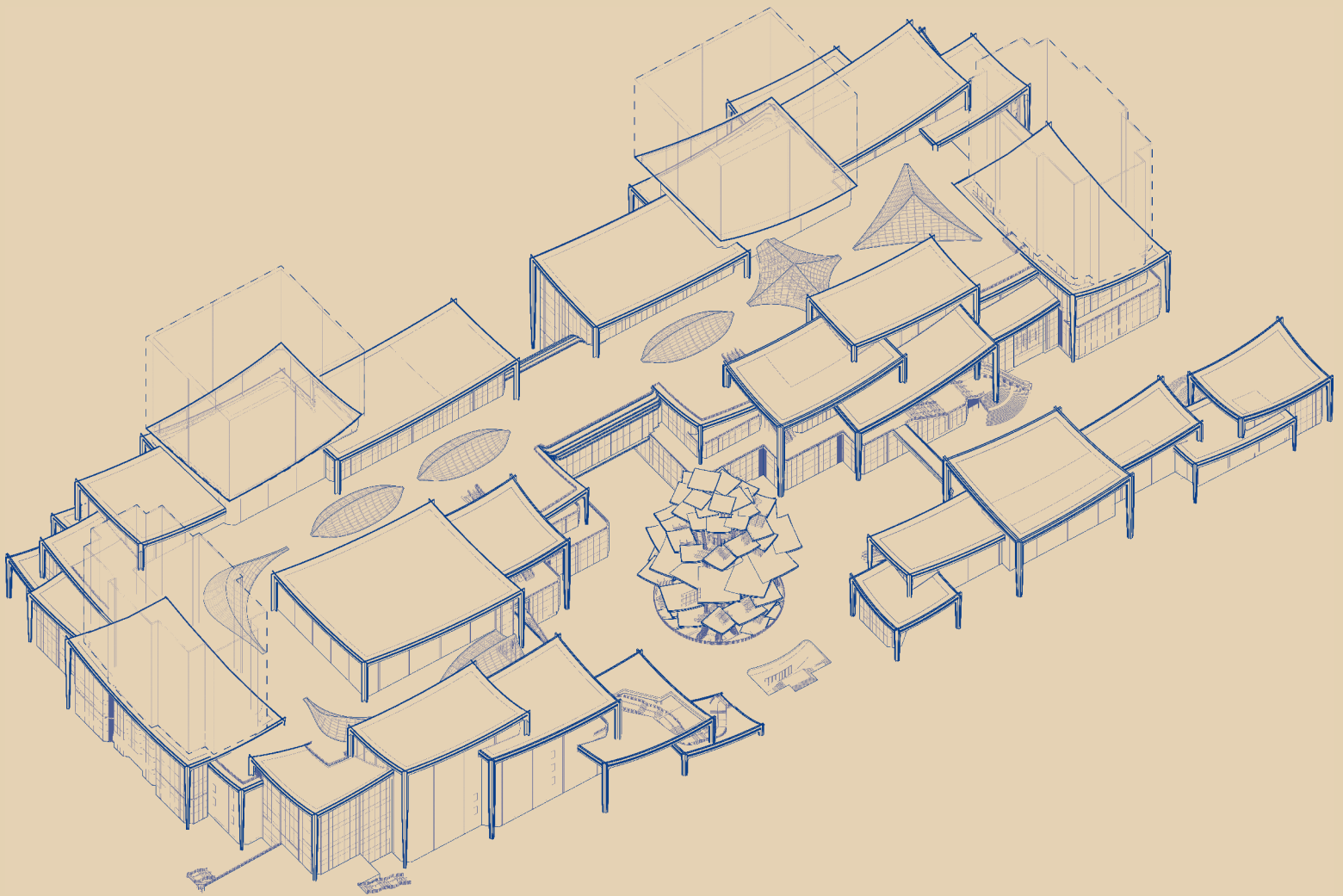






포름나드 사무엘 드 샹플랭

Promenade Samuel-De Champlain

Daoust Lestage Lizotte Stecker

글 Daoust Lestage Lizotte Stecker

Lead Designer(Architect, Urban Design, Landscape Architect)

Daoust Lestage Lizotte Stecker, Réal Lestage, Eric Lizotte, Caroline Beaulieu, Lucie Bibeau, Grégory Taillon, David Gilbert, Mélissa Simard, Luca Fortin, Maria Benech

Landscape Architect Consortium Daoust Lestage Lizotte

Stecker, Option aménagement et Williams Asselin Ackaoui

Collaboration

Project Manager: Société Québécoise des Infrastructures(SQI)

Partner: Ministère des Transports et de la Mobilité Durable

Engineering: AtkinsRéalis, WSP, Tetra Tech

Process Engineering: François Ménard

Construction Manager: Pomerleau

Contractor: Construction BML(Station de la Côte, Station de la Voile et Boulevard), Construction Deric(Station de la Plage, Mirror of Water and The Swimming Area), Construction Citadelle(Pavillon de la Côte et Pavillon de la Voile), Bauvais & Verret(Pavillon des Baigneurs)

Client Commission de la Capitale Nationale du Québec(CCNQ)

Location Québec, Canada

Area 150,000m²

Completion 2023

Photograph Adrien Williams, Stéphane Groleau, Maxime

Brouillet, Nicole Grenier, Radio-Canada/Erik Chouinard

도스트 레스타주 리조트 슈테커(Daoust Lestage Lizotte Stecker)는 1988년 설립되어 건축, 조경, 도시설계를 다루는 다학제 디자인 그룹이다. 디자인 관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설계, 건축, 조경,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대상지와 주변 환경의 본질적 특성을 주의 깊게 살피고, 명확한 현대적 디자인 언어를 통해 과거의 흔적을 드러내는 방식을 추구한다. 간결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관점에서 유익미하고 완성도 높은 공간을 설계하며 소규모 지역 단위부터 국제적 규모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롬나드 사뮈엘 드 상플랭Promenade Samuel-De Champlain(이하 사뮈엘)은 항량했던 2.5km 길이의 고속도로와 철도 노선을 세인트로렌스강St. Lawrence River을 따라 펼쳐진 중요한 문화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1단계 이후 15년 만에 완공된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되 차별화된 방문객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했다. 한때 이곳은 지역 주민에게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일

반 도로로 바뀌고 철도 노선이 이전된 뒤 강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15만㎡ 규모의 부지가 확보됐다. 설계 목표는 지역 주민에게 강을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사뮈엘은 캐나다 퀘벡 주정부가 주도하는 수도 유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사명감을 설계의 원동력으로 삼고, 마스터플랜부터 건축과 조경, 가구와 신호 체계까지 모든 디자인 요소에 종합적이고 다학제적 방식으로 접근했다.

- A. 파빌리온 드 라 코트

B. 파빌리온 데즈 베노르

C. 파빌리온 드 라 부알
1. 실레리 공원

2. 해안 초원

3. 프롬트낙 키

4. 생미셸 잔교

5. 수영장
6. 미러폰드

7. 해변

8. 습지 부두

9. 가족 및 스포츠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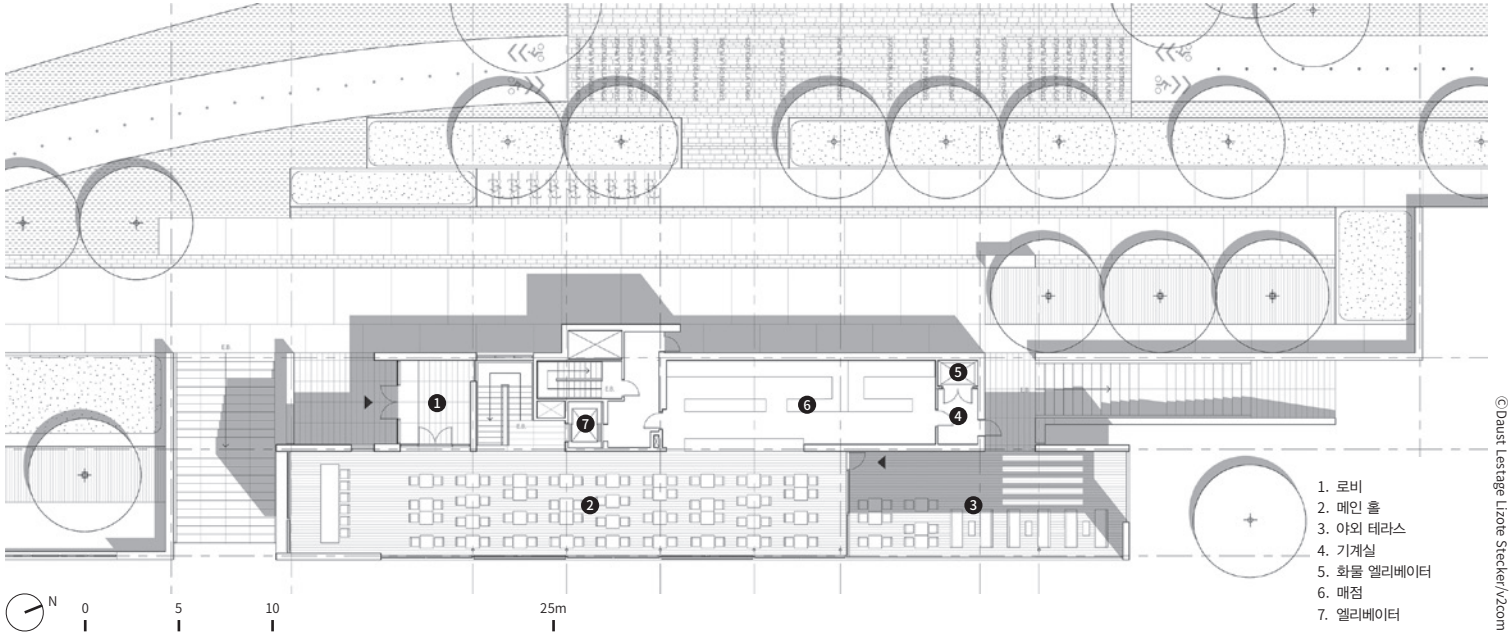
10. 무릉 잔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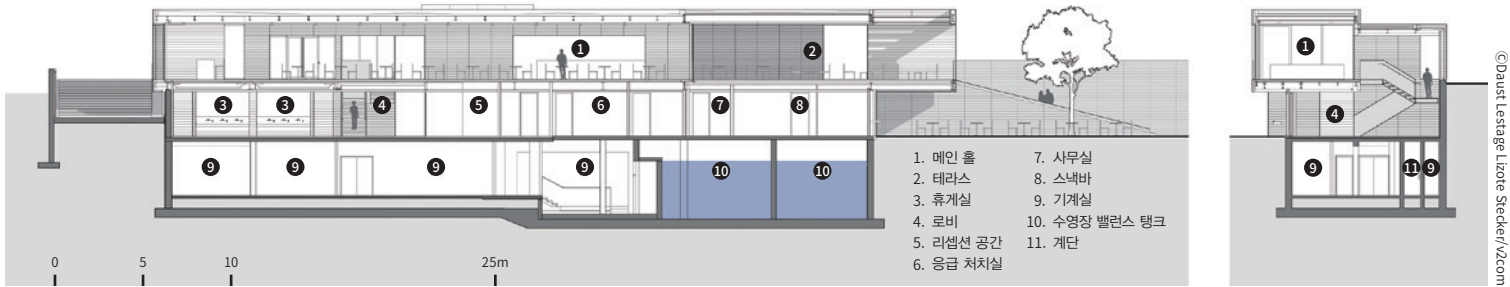
프롬나드 사뮈엘 드 상플랭은 파빌리온 등을 활용해 매력적인 휴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설계 목표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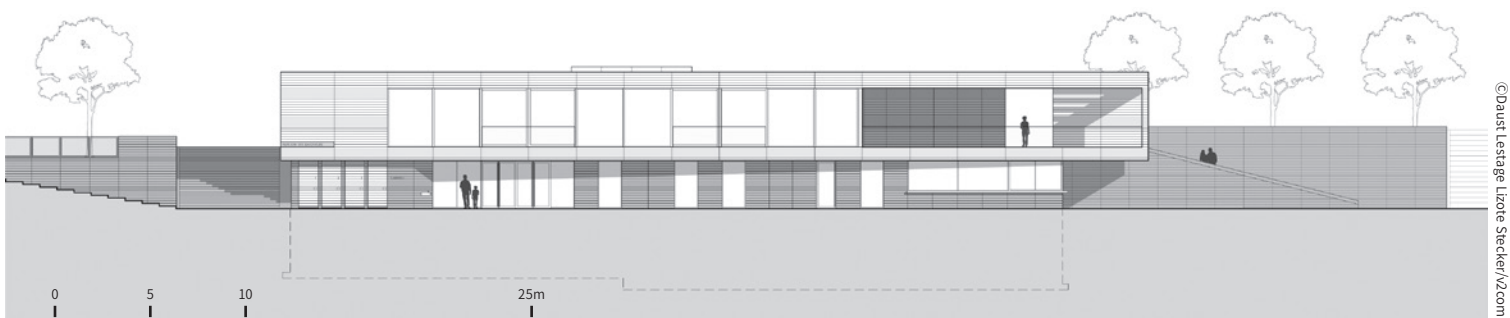
파빌리온 데즈 베노르 평면도



파빌리온 데즈 베노르 단면도



파빌리온 데즈 베노르 입면도



강의 회복

우선 세인트로렌스강의 존재감을 강화하고자 했다. 대상지의 본질을 포착하고, 이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과 고유한 해안 생태계를 드러냈다. 디자인 영감은 목재 무역과 조선업을 기반으로 했던 대상지의 역사에서 얻었다. 19세기 초 기업가들의 창의적 발상을 디자인에 반영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간결하고 강력한 디

자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 유산의 관점에서 귀중한 자원인 목재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부듯가 잔해와 더미가 형성했던 기존 해안선 경관을 떠올리게 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지난 세기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플라주 뒤 푸롱 Plage du Foulon을 연상시키는 해변을 개발하는 것으로 매력적인 휴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미러폰드와 수영장은 강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파빌리온에서 해변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낸다.







©Adrien Williams/v2com

화강암 기반 위에 놓인 캔틸레버 목재 구조물은 독특한 볼륨감을 형성한다.



©Adrien Williams/v2com

곡선형의 해변 장벽

두 개의 볼륨

주요 편의 시설인 파빌리온 데즈 베노르 Pavillon des Baigneurs는 볼륨감 있는 두 개의 직사각형이 길쭉하게 놓인 형태다. 하나는 해변 장벽에서 뻗어나가는 화강암 구조물로, 다른 하나는 화강암 기반 위에 놓인 목재 구조물인 파노라마 전망대로 독특한 볼륨감을 선사한다. 전망대 내부에는 고성능 난간 유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내외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활기찬 해변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다. 흰색 목재 중심의 실내 인테리어로 따뜻한 해안가 분위기를 연출하고, 캔틸레버 목재 구조물의 돌출부는 수변 공간의 문지방으로서 1층 해변 스넥바와 테라스를 장식하는 예술적 디자인 요소가 된다.



©Radio-Canada/Erik Chouinard/v2com

흰색 목재 인테리어로 따뜻한 해변 분위기를 연출한 테라스

볼륨감을 형성하는 긴 직사각형 형태의 화강암 구조물



©Stéphane Groleau/v2com

강변의 휴양지

사위엘은 건축가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나이, 개인적 배경,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며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안식처가 된다. 미러폰드와 수영장은 강과 조화를 이루며 파빌리온에서 해변

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낸다. 인피니트 풀의 무한한 수평선은 이용자들에게 마치 강물 속에서 헤엄치고 산책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해변 장벽과 바다 라인 잔디^{sea lyme grass} 군락을 따라 만들어진 모래 해변은 물길과 조화를 꾀하는 강변의 휴양지 같은 경관을 연출한다.

강에서 수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인피니트 풀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모래 해변



©Maxime Brouillet/v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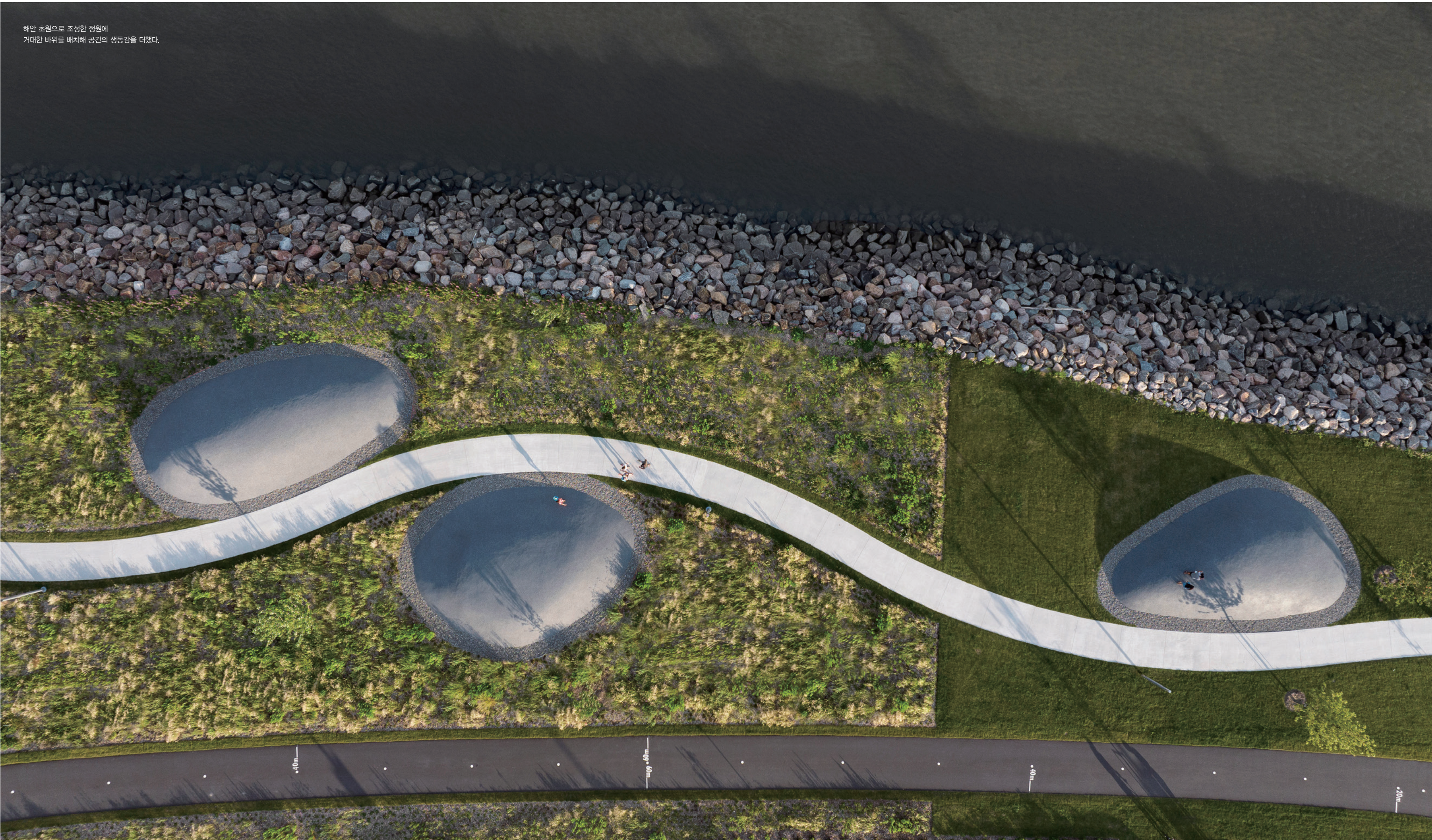


©Maxime Brouillet/vZoom



© Nicole Grenie/vZoom

해안 초원으로 조성한 정원에
거대한 바위를 배치해 공간의 생동감을 더했다.





부둣가를 연상시키는 산책로 데크를
기존 습지와 나란히 배치했다.

해안 산책로
해변을 따라 다양한 기능과 분위기가 있는 산책로가 펼쳐진다. 서쪽 방향 산책로에서는 자연적 지형에 융화되며 고유한 해안 경관을 드러내는 해안 초원을 연상시키는 정원을 가로질러 갈 수 있다. 파빌리온 드 라 코트 Pavillon de la Côte와 프롱트낙 키 Frontenac Quay에는 현

대적 감성을 담아냈다. 동쪽 부둣가 산책로는 기존 습지를 강조하며 드넓은 녹색 평원으로 마무리된다. 이 평원에는 파빌리온 드 라 부알 Pavillon de la Voile, 스포츠 시설, 피크닉 플랫폼, 강변 진입로 등 다양한 공간이 어우러진다.



©Adrien Williams/v2com



©Adrien Williams/v2com



©Maxime Brouillet/v2com

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목재 데크 산책로



©Adrien Williams/v2com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산책로 구조물

지역 생태계와 공공 공간

대상지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목 1,055그루, 관목 2만8,950그루, 자생종 초화류 11만 7,000본 등 다양한 식물을 심었다. 생마셸Saint-Michel 습지를 활성화해 지역의 동식물군에 반드시 필요한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했다. 다학제적 노력의 결과물이 잘 반영된 사위엘은 개장

후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중 보건, 기후변화 대응, 생태학, 생물 다양성 등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완성도 높은 공간을 통해 구현하고, 이용자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며 공공 공간의 위상을 높이고 좋은 공공 공간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변역 안호균 진행 금민수 디자인 팽션민**

아생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해안 초원 사이를 거닐며 산책할 수 있다.



©Maxime Brouillet/v2com